글로벌 인재 육성 앞장 굿네이버스 광주지부장 김 진 씨

"글로벌 시민학교·희망편지 쓰기 운동 펼칠 것"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서 사고와 생활의 틀을 바꾸고 있는 만큼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도 올바른 세계관과 국제적인 리더쉽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일보와 굿네이버스가 힘을 합쳐 시대의 요구에 부흥해야 합니다."

1991년 설립 국제구호 NGO단체

김 진 굿네이버스 광주지부장은 지난달 30일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굿네이버스는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에 부응하고자 지난 1991년 3월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NGO단체다.

지난 1996년에는 국내 최초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협의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지난 2007년에는 새천년개발목표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단체다. 우리나라에는 광주지부를 포함해 39개 지부가 있으며, 해외에도 24개 사업장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국내전문복지사업과 대북지원사업, 해외구호개발사업, 긴급구호사업 등을 하며 인종과 종교, 사상이나 지역을 초월해 우리 주변과 지구촌의 이웃들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봉사가 아닌 다수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지역의 대표언론 광주일보와 함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굿네이버스는 광주일보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글로벌 시민학교 프로그램' '지구촌 빈곤퇴치 캠페인'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인 지구촌 희망편지쓰기 대회' '글로벌 시민양성을 위한 지역민대상 나눔교육' 등을 함께할 계획이다. 이런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전쟁과 가난, 질병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을 이해하고 인권의 소중함을 재인식해 세계시민으로의 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지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올바른 성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예정이다. 결식아동을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점심도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다수 참여하도록 광주일보와 협약

김 지부장은 "국내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약을 할 계획"이라며 "나눔교육 실시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이 가치를 전달하고 공유, 나눔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교육감 광주여고 이설 기념식 참석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왼쪽에서 여섯번째)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구 화정동으로 이전한 광주여자고등학교 이설 기념식에 참석, 학교 관계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순천대-여수 나진초등 과학교육지원 협약

순천대학교(총장 장만채) 로봇과학교육센터(센터장 이형옥교수)와 여수 나진초등학교(교장 김철수)는 최근 초등학생 과학교육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보훈청 보훈가족 초청 봄꽃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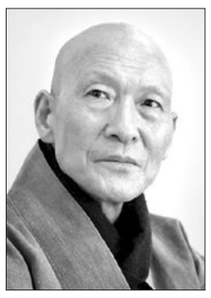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장갑수)은 지난달 31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중인 광주봄꽃박람회에 보훈가족 50여 명과 함께 봄꽃 나들이 체험을 실시했다.〈광주지방보훈청 제공〉

롯데백화점 노인요양병원 봉사활동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회)은 지난달 31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보금자리 노인요양병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백화점 직원들은 노인들을 위해 건강 체조를 비롯해 피부 마사지와 발마사지 등을 실시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법정스님 1978년 쓴 미발표 원고 발견

'악에 관한 것' 원고지 14매



법정스님이 1978년 6월에 쓴 미발표 원고가 발견됐다.

함석헌기념사업회는 당시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이었던 법정스님이 썼던 미발표 원고 '악에 관한 것'을 당시 편집장이던 박선균 목사가 최근 찾아냈다고 31일 밝혔다. 원고는 '악을 선으로 바꿈' 등의 소주제로 구분돼 원고지 14매 분량으로 작성됐다.

법정스님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배운 구자라티 시 한 귀절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았었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마실 물 한 그릇을 주어 당신도 그 보답으로 그에게 물 한그릇을 주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다'"라고 썼다.

또 "정말로 나에게 진실과 소극적 저항(passive resistance)의 가치를 깨우쳐 준 것은 '신약성서'였다. 내가 '산상수훈'에서 '앙갚음 하지 말아라 누가 오른 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와 같은 귀절을 읽었을 때 나는 정말로 뛸뜻이 기뻐하였으며"라고 적었다.

아울러 "'바가받 기타'는 이러한 나의 감명을 심화시켜 주었으며, 톨스토이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작품은 그 감명을 영원히 확신에 차게 하였다"고 덧붙였다.

함석헌기념사업회는 조만간 발간되는 3·4월호에 원고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비·이병헌 MTV 무비 어워즈 예비 후보에

비와 이병헌이 2010 MTV 무비 어워즈 시상식 예비 후보에 올라 네티즌의 한 표를 기다린다.

세계적인 음악 엔터테인먼트채널 MTV는 6월6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제19회 2010 MTV 무비 어워즈 시상식의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예비 후보자 투표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부문별 정식 후보자를 뽑기 위한 사전 투표로, 시상식 홈페이지(movieawards.mtv.com)에서 오는 9일까지 네티즌의 직접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비

이병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초로 지역 제한을 없애 한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할리우드에 진출한 비와 이병헌은 각각 '닌자 어쌔신'과 '지 아이 조'로 예비 후보에 올랐다. /연합뉴스

신문배달 소년 "법정스님은 강직하고 고고하셨다"

"법정스님은 강직하고 고고했습니다. 계율에 매우 엄격해서 어긋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도 승복을 위로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법정스님의 신문배달 소년'으로 알려진 강모(49)씨는 법정스님에 대해 이같이 기억했다. 법정스님의 49재 3재가 열린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길상사 행지실에서는 법정스님이 강 씨에게 남긴 책 전달식이 있었다.

법정스님이 강씨에게 남긴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생텍쥐페리의 위대한 모색', '선학의 황금시대', '선시'(석지현 편역), '벽암록',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등 모두 6권이다. 이 중 '예언자'는 흰 종이로 책 표지를 싸놨다.

강씨는 법정스님이 1970년대 초 봉은사에 있을 때 어머니와 함께 봉은사에 살면서 종무소에 배달된 신문을 법정스님 처소까지 전달했다.

법정스님은 유언장에 "머리맡에 남아 있는 책을 나에게 신문을 배달한 사람에게 전하여 주면 고맙겠다"고 적었다. 강씨는 "어릴 때는 멋모르고 (스님을) 따랐는데, 스님의 유품을 받는 게 상당히 부담된다"며 "왜 스님이 유품을 전달하라고 했는지 궁금해 고민을 많이 했다. 아마 심부름을 했던 내게 스님이 마음의 빚과 짐이 남아서가 아닐까 싶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행정혁신인상 진종규사무관 선정

광주시 공원녹지과 진종규(54) 사무관이 제27회 행정혁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진 사무관은 공원녹지과 도시녹화 담당으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중 가로 숲 조성,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작은 공간 녹화 등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가로수 사이에 나무울타리를 조성하는 등의 아이디어로 정부의 녹색건전성평가에서 광주시가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인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전보 ▲호남지사장 김선규
◆대신증권
◇승진 〈지점장〉 ▲나주 박흥철 ▲목포 정연규 〈차장〉 ▲목포 김미희 ▲광양 김병곤 ◇전보 〈지점장〉 ▲광주 김영설 〈영업점 부장〉 ▲광양 최동일 〈차장〉 ▲순천 김학연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정원균·김경숙씨 장남 경훈군 전익수((주)쌍학)·박영순씨 차녀 영미양=3일(토) 오후 1시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윤순임씨 오남 김오곤군 김환식·김화자씨 조카 김정자양=3일(토) 광주경복궁웨딩컨벤션 1층(경복궁홀)

▲유용태·박미숙씨 차남 민완군 김생옥·허순심씨 장녀 미령양=4일(일) 낮 12시 완도군 완도읍 다이아 예식장.

동창·동문회

▲구림초등학교 49회 동창회(회장 신원장)=3일(토) 오후 5시 구림초등학교 운동장. 010-8200-8282.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 월례회=5일(월)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종친회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한영) 부산 화지 시조 선산 한식향사 참례=6일(화) 오전 6시30분 광주상록회관 앞 출발. 010-9615-8567.

▲경주김씨 재광 이사 월례회의(회장 김두석)=5일(월) 오후 6시 홍백(광주 동구 대인동 154-1) 228-3382, 010-6455-6296.

알림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모집

▲광주 시사 영어 전문학원 고용보험 수강 모집=FREE TIME 제도, 담임제 관리, 매달 모의 토익 시험 실시, 소수 정예, 주말반 가능. 062-223-0582.

▲거동 불편한 어르신 모집=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부러 재가노인복지센터(062-266-6321~2)

▲황새축구클럽=축구에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환영 회원 수시모집(두암동 거주자 대 환영) 010-8216-8585.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 모집=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효사랑넷 봉사단=뜸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 모집=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부음

▲김성례씨 별세 정진영·진흥·철모·영순·영희·영신·영숙·금자씨 모친상 =발인 2일(금)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김계수씨 별세 용권(㈜코스코팀장)·용원(임곡 성당 신부)·성권·용휴·현미·신덕씨 부친상=발인 2일(금)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설효순씨 별세 김진만·진갑·진철·진자·진명씨 모친상=발인 2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정상채씨 별세 경환·재경·경천·경민·형옥·미옥·성옥씨 부친상=발인 1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정병수씨 별세 도진·연주·홍주씨 부친상=발인 1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김숙자씨 별세 이행로·항숙·시수(무등일보 광고국장)씨 모친상=발인 2일(금) 광주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55.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 227 - 4000
故 김 영 애 님 (여/80세)
상주 전문식/윤기자, 전문관, 전문정/정미숙
딸/사위 전여란 / 하경전, 전애숙 / 리기영
전애자 / 하규신
호 실 호실 201 호
발 인 04월 02일
장 지 용산동 선영
故 조 정 남 님 (여/74세)
상주 아정구 / 고철순, 아종구 / 아명희
딸/사위 아민님, 이재님 / 함귀님, 이경숙 / 백정선
아순희 / 박인철, 이오님 / 라철암
호 실 특실 301 호
발 인 04월 01일
장 지 순창 동계 선영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넓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